

## 2019 특별메세지 - 하나님의 사람 V. 경청의 사람, 하늘이 열린다.

---

### 1. 쉼마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사마아’의 명령형으로, 우리말로는 ‘들으라’ 라고 번역된다. 쉼마는 이스라엘의 의식구조와 삶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태도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attitude) 즉,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듣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며, 부유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식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산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현상에는 그 원인이 있다. 파도가 치는 현상은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믿음은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보이는 세계의 현상을 넘어선 이야기로 가득하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수하 중 아픈 사람을 보지는 못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아픈 내 종이 나올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다. 백부장의 믿음은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했다.

[히브리서 11:6-7]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6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그분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가 노아이다. 히브리서 11:7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 결과 그의 집은 구원을 얻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결국, 믿음은 ‘의식구조’이며 ‘사고방식’이다. 의식 구조라는 것은 ‘인식’을 말한다. 사람의 인식은 힘이있다. 사람의 인식 안에서 보여지는 실재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인식한 것을 실재로 여기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인식이 보여지는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쉐마’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쉐마’의 인식구조를 통해 세상을 본다. 현실을 직시한다.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채우는 삶을 말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쏟아낼 것이 없는데 쏟아내야 한다. 채움이 없는 삶을 말한다. 채워져야 쏟아낼 수 있다. 쏟아낼 것이 없는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니 결국 파열이 된다. (영혼육의 파열). 모든 것을 소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구조이다. 문제는 공급이 없는 소비이다. '쉐마'는 이런 세상의 구조를 거스른다. 사람은 쏟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 2. 왜 들어야 하는가?

[열왕기상 3:8-9]

8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들어야 하는가? 솔로몬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솔로몬이 왜 듣는마음을 구했는가?

### (1) 내가 선 위치

오늘 솔로몬의 위치는 어디인가?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8절에 솔로몬은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고 고백한다.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다. 솔로몬이 인식하는 백성은 문제가 있는 곳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을 필요로 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내가 선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한다.

### (2) 큰 백성, 셀 수 없다. 기록할 수 없다.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

솔로몬이 선 위치에서 백성의 문제가 보였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내 힘으로 이 엄청난 문제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그런 것이다. 내 힘으로 감당이 되는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솔로몬의 솔직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3) 송사를 해결하기 위한 듣는마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 듣는마음을 구한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송사가 걸린 재판과 같다. 재판은 결정이다.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힘이 있다. 내 삶의 문제를 솔로몬처럼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 **송사에 걸린 사람** : 자기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 일 수 없다. 문제는 풍랑과 같다. 풍랑이 일어날 때 보통의 인간은 풍랑 앞에 객관적 일 수 없다(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 돌파구가 없다. 함몰되기 쉽다. 상황에 잠식 당하기 쉽다. 보통의 인간이다. 육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듣는다는 것은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다른 차원이 열린다는 것이다.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높은 차원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재판장의 자세이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재판하시는 위대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지만 먼저 그분이 듣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솔로몬의 송사 과정을 보라. 재판장은 먼저 들어야 한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다. 듣는 공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또한 문제에 대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늘문을 여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들어야 한다. 문제에 함몰되고 휩쓸리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이 힘이다. 문제가 있는가? 재판장의 위치로 가라. 그리고 솔로몬처럼 듣는 공간을 구하라.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솔로몬의 위치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공간이 우리를 살게 한다.

#### (4) 다윗

문제에 잠식 당하면 위대한 다윗도 객관성을 잃는다. 좌표를 잃었다는 것이다. 방향성의 상실. 결국 그 배는 방향성을 잃고 표류한다. 문제와 멀어진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가 죄악에 있을 때에도 그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이다. 죄 앞에선 다윗을 보라. 상황에 잠식 당한다. 두는 수마다 악수이다. 객관적일 수 없다. 온갖 악수를 둔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한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시작이 듣는 공간을 확보했을 때이다. 비로소 재판장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좌표가 주어진다. 위치 파악이 되면 살 수 있다. 구조 받을 수 있다.

### 3. 경청의 관계

경청이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깊게 듣는 것이다. 흘려들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경청의 사람이셨다. 삭개오의 말을 들어주셨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 경청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시작이셨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경청해주셨다는 것이다.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쉼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이다. 기록이 될 때까지 들어야 한다.

### 4. 경청의 사람의 태도

#### 1. 먼저 들으려 하라.

지적하는 사람은 듣는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먼저 들으려고 해야 한다. 믿음의 법칙이다. 그러면 내 차원을 넘어선 다른 공간이 생긴다. 그때 돌파구가 마련된다.

#### 2. 힘든 말도 들으려고 하라.

아픈 말도 들어야 한다.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으려 하라. 물어보라.

#### 3. 기도가 듣는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들으려 하셨다.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라.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또 장기적 문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의 마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이다. 마음에 확신으로 선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라.